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2월 12일(월) : 부설연구소 소리로 여는 세상 논개 단가 제작 계약 (논개정신선양회)
- 12월 14일(수) : 기자촌 재개발 기록화 사업 추가 인터뷰
- 12월 15일(목) : 기자촌 재개발 기록화 사업 편집회의
- 12월 16일(금) : 2023년 사업계획 수립 사무국 회의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신입회원 소개

지난주 우리 연구원에 두명의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민호 교수와 전주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정란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양민호 회원은 변주승 이사과 이정욱 회원의 추천으로 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셨으며 유정란 회원은 백진우 회원의 추천으로 연구원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인연의 끈, 아름답게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구원 53회 문화강좌 및 송년회

지난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53차 문화강좌가 열렸습니다. 이십여분의 회원과 시민이 참석해 이정욱 감독을 모시고 "국화꽃향기만 남긴 채 떠난 그녀, 배우 장진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18시 30분부터 2022년 연구원 송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느 해와 다르게 이번 송년회에는 "도서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의 어수선한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남은 2022년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53차 문화강좌와 2022년 송년회 이모저모



■ 역사속의 오늘

나비가 된 꽃 (1997년 12월 16일)

1992년 1월 8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처음 열린 뒤 30년간 이어지고 있다. 당시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시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등 문제 해결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30년간 이어지고 있는 수요시위는 1924년 만주 길림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도화선이 되었다. 그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평양으로 이사해 살던 중 14세 때 어머니가 재혼해 양아버지 함께 지냈다. 돈을 벌기 위해 양아버지와 함께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군인에 의해 트럭에 태워졌고 그길로 북경 근처 철벽진으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는 끌려간 지 넉 달 만에 한국인 남성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위안소에서 탈출하였고, 도와준 이와 함께 상해에 정착했다.

상해에서 딸과 아들을 낳은 뒤 해방을 맞았고, 1946년 6월에 광복군을 따라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귀국했다. 이후 딸과 남편, 아들이 차례로 생을 마감하여 홀로 파출부 생활과 취로사업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1990년 6월 일본이 '일본군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이에 격분해 폭로할 것을 결심했다.

그는 광복 46주년을 하루 앞둔 1991년 8월 14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을 찾아가 국내 거주자로서는 최초로 일본군 성노예의 실상을 실명으로 증언해 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며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했다. 1991년 12월 6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해, 1994년 6월 6일 제9차 재판 진행 중 위안부 사실에 대한 법적 증언을 하기도 했다.

1993년 한국정신대문제연구회가 당시 일본 총리였던 미야자와의 방한을 앞두고 발간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이라는 증언집에서 참담했던 자신의 위안부 생활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정신대 항의집회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일본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했으며, 정신대 문제를 국제 사회 문제로 확대하는데 여생을 마쳤다.

25년 전 오늘, 꽃으로 태어나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여성운동가 김학순 선생이 나비가 되었다.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선생이 나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매주 수요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수요시위가 요구하는 것이 위의 일곱 가지이나 여전히 일본 정부는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말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속이 후련합니다. 지금도 ‘일장기’만 보면 억울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요즘도 일본이 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김학순 선생 말씀 중에서...